기자의 책읽기

최성일 · 출판평론가

기자의 책읽기뿐만 아니라 작가·학자·평론가의 책읽기도 세상 모든 책의 일부를 담은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는 읽었는데 나는 안 읽은 책은 많다. 하지만 나는 읽었는데 전문가는 읽지 않은 책도 있다. 그러니 전문가적 책읽기에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깊동짜이라는 책의 감명의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쩌나 자괴 감먹을 까닭은 더욱 없다.

책 읽는 기자들이 책 마을의 '게이트 키퍼'라면, 책 마을의 주민들은 문자들이 미처 못 보거나 잘못 본, 울퉈리 바깥에 있는 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일이다. 이와 동시에 기자의 책읽기가 개인의 취향과 소속 매체의 성향에 따라 한번 길러진 책들에 대한 독후감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약간의 후회와 깊은 반성

나는 주류 언론 매체와는 담을 쌓고 지내는 마이너 필자다. 한데 싸잡아 '○○동'이라고 무슨 동네 이름처럼 부르기도 하는 메이저 신문들과 친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ㄷ신문에는 두 번이나 글이 실렸다. 그나마 두 번 다 뒷맛이 영 개운치 않은 불유쾌한 경험이었다. ㄷ신문의 첫 기고는 5, 6년 전으로 거슬러 오른다.

다른 분이 쓰던 출판동네 뒷얘기를 전하는 가십성 연재물을 이어받아 원고를 두 차례 보냈으나, 먼저 보낸 글만 신문에 나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연재가 중단되었다. 그런데도 담당기자는 이에 대해 내게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신문에 실린 것의 원고료 지급마저 늦어져 담당기자의 전화를 돌려받은 경리 직원에게 사정을 말하고서야 원고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 3월 중순, ㄷ신문에 실린 두 번째 글은 꽤 비싼 원고료에 잠시 눈이 먼 결과다. 원고 수락 여부를 묻는 이메일에 덧붙여진 원고료가 무려 내가 받는 200자 원고지 1장당 평균단가의 서너 배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쓰기 쉬운 주제여서 청탁을 덥석 받아들였다. 글이 실리고 나서 원고료가 바로 들어와 저번과 달리 원고료 문제는 깔끔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씁쓸한 뒷맛이 남았다.

나는 ㄷ신문이 출판면에 격주로 싣는 '추천! 테마북'에서 글쓰기 관련서를 다뤘다. 써달라는 대로 원고지 8장을 써서 보냈으나, 많지도 않은 분량의 8분의 1이나 되는 원고지 1장이 잘렸다.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닌데다 하소연할 곳도 마땅하게 없긴 하지만, 내 글이 편집당하면 기분이 썩 좋진 않다. 데릭 젠슨의 『네 멋대로 써라』(김정훈 옮김, 삼인, 2005)를 거론한 대목에서 "젠슨은 산업 문명, 임금 경제, 산업 학교교육 따위를 싫어하는데, 특히 학교에 대한 그의 비판은 정곡을 찌른다"에 이어지는 삭제된 내용을 여기에 되살린다.

그와 그가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배우는 건 좋아해도 학교는 싫었단다. 젠슨은 이제 그 까닭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지 않은 건, 내가 배우고 있던 것, 바로 그거였다." 학교가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림없는 소리라는 그의 반론에도 동의한다. "학교는 너무나 잘 성공해나가고, 제 목적을 정확히 이뤄내고 있다."

뭐가 잘못되었나? 인용이 많아 그런가, 아니면 글쓰기와 무관하게 보여 그런가. 잘 모르겠다. 나는 어렴풋하게나마 학교를 비꼰 것이 데스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나, 추측할 따름이다. 반면, 내가 제시한 '글쓰기를 주제로 한 주요 책들' 중 한 권이 빠진 까닭은 대충 짐작이 간다. 글쓰기 관련 서 목록 작성은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지만, 담당기자의 업무를 덜어준다는 생각으로 추천할 만한 글쓰기 책 10권을 원고에 덧붙였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강준만 교수의 『대학생 글쓰기 특강』(인물과사상사, 2005)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면에 반영되었다.

ㄷ신문에 비판적인 저자의 책은 서지사항을 소개하는 것조차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그랬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옹졸한 처사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심각한 문제점은 ㄷ신문은 그 신문과 그 신문이 추구하는 바를 비판하는 책을 전혀 소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편벽됨이 메이저 신문 전체의 문제라는 데 있다. 아무튼 나는 돈에 눈이 멀어 ㄷ신문에 글 쓴 것을 약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빠삐용을 위한 책

최근 'ㅇㅇ동'의 일원인 두 ㅈ신문 기자가 책읽기 책을 펴냈다. 그 중 하나인 김광일의 『빠삐용의 책읽기』(생각의나무, 2006)는 ㅈ신문 주말 매거진에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타이틀로 1년간 연재된 독서칼럼을 엮은 것이다. "이 책은 저의 인생관과 사랑을 담은 책입니다. …(중략)… 그 책을 소개할 당시에 저 자신을 가장 절실하게 관통하고 있던 주제를 책 이야기 속에 풀어 놓았습니다."

내게 감동적인 책이 다른 사람에겐 싱겁기 짝이 없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깊은 감명을 준 책에 아무도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이에겐 영혼을 뒤흔든 '결정적 한 권'일 수도 있지만, 나에겐 그저 괜찮은 한 권의 책일 수도 있다. 이러니 고전과 명작의 유명세에도 혹하지 마시라. 소문을 참고는 하되 판단은 직접 읽고 내리시라. 위대한 책이든, 허접스런 쓰레기 같은 책이든 읽은 책의 감응은 읽는 사람마다 다르다.

무심코 이 책 맨 뒤에 있는 '이 책 속의 책들' 목록을 훑어보던 나는 일순 멈칫 한다. '일상의 감옥에 갇힌 빠삐용들에게 권하는, 단 한 권의 책!'(홍보 문구)에 담긴 책들 가운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단 한 권도 없어서다. 다 읽진 못했어도 좀 읽었다고 할 수 있는 책마저 딱 한 권뿐이다.

고든 리빙스턴의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노혜숙 옮김, 리더스북, 2005)이 그것인데 "항상 그렇듯이, 일단 넘 재미있습니다"는 저자의 독후감은 다소 경박하다. 나는 이 책의 초반부가 무겁게 다가와 재미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김광일이 가장 먼저 인용한 리빙스턴 책의 구절은 내가 읽은 범위 안에 있다. "한순간에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들은 나쁜 일들이 대부분이며, 우리 삶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52쪽)

김광일의 『빠삐용의 책읽기』(생각의나무, 2005)

ㅈ신문 주말 매거진에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타이틀로 1년간 연재된 독서칼럼을 엮은 것이다. ㅈ신문의 문화면이 이 신문의 정치 · 경제 · 사회면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의 가치를 수용한다는 주장은 엉성하기 짝이 없다. 『빠삐용의 책읽기』에 등장하는 책들의 면면이나 북 리뷰 기사의 논조는 진보와 거리가 있다. 스타일을 탓하면 안 된다는 건 잘 알지만, 'ㅂ니다'체 문투가 거슬리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김성희의 『맛있는 책읽기』(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

김성희는 좋은 책을 폭넓게 읽는 독서가다. 『맛있는 책읽기』에서 소화한 책이 그걸 잘 보여준다. 그의 독서목록은 두 번 읽어도 좋을 추리소설에서 범양사출판부의 '신과학총서'를 경유하여 장글랏은 '주의'와 '이즘'을 다룬 책까지 실로 다양하다. 책을 감별하는 눈썰미와 책들을 엮는 솜씨, 책을 읽는 내공과 그걸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하지만 그가 사회현상을 보는 시각은 좀 그렇다. "제발 싸움질만은 그만두면 좋겠다"는 상투적인 소망으로 귀착되는 건 유감이다.

'이 책 속의 책들' 목록은 64권이다.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된 43권으로 숫자를 낮춰 잡아도 그 중에서 제대로 읽은 책이 단 한 권도 없다니, 아찔하다. 내 밥줄이 끊어질지도 모를 비상사태다. 정신을 차려 목록을 찬찬히 훑어내려가자 평정을 되찾는다. 빠삐용을 위한 추천서는 내가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책들이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책들을 우리가 종신형을 선고 받고 무인도로 들어갈 때 마지막에 골라야 하는 10권의 책처럼 골랐습니다. 무인도로 들어가는 빠삐용이 책을 10권만 사다 달라고 저에게 부탁한다면 그때 골라주고 싶은 책들"이라는 도서 선정의 배경과 의도는 다분히 과장되었다. 저자의 취향과 저자가 몸담고 있는 신문사의 '포용력'이 반영됐을 따름이다. 이 신문도 강준만 · 박노자 · 한홍구 교수의 책을 언급하는 데 인색하리라.

나중에 'ㅈ신문 제몫 찾아주기 운동'이라는 이름을 얻은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안티 캠페인이 활발하게 펼쳐질 때, 이에 대한 반론으로 '지면 활용론'과 '문화면의 상대적 진보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둘 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었다. 'ㅇㅇ동'의 동네 유지들은 지면 활용을 당할 만큼 멍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지면 활용론자'를 자기네 입맛에 맞게 활용했다.

ㅈ신문의 문화면이 이 신문의 정치 · 경제 · 사회면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의 가치를 수용한다는 주장은 엉성하기 짝이 없다. 『빠삐용의 책읽기』에 등장하는 책들의 면면이나 북 리뷰 기사의 논조는 진보와 거리가 있다. 스타일을 탓하면 안 된다는 건 잘 알지만, 'ㅂ니다'체 문투가 거슬리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요즘은 신문 들추기가 두려울 만큼 세상이 치사해졌는데요, 하얀 이력서를 앞에 놓고 아직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문 들추기 두렵지 않던 시절은 언제였는지 궁금하다. 또 고용안정을 이뤘던 시기도 알고 싶다. 한자로 쓴 '구직' 팻말을 목에 건 모자를 눌러 쓴

남자의 사진이 1950년대 찍힌 걸로 아는데 말이다.

"너무 과격하게는 말고, 이 책과 더불어 세상을 쪼금만 등져보십시오"에서는 체제 내향성이 읽히고, "요즘도 미국 본토에서만 한 해에 40만 부씩 팔린다"에선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본토에 들어가나? 마나?' 객쩍은 생각을 하다가, '그럼 우린?' 하고 억하심정이 발동한다. 이 책 표지에는 '김광일의 책 읽어주는 남자, 하나'라는 글귀가 있다. 앞으로 계속 나올 모양이다. 그 '둘'에는 내가 읽은, 읽을 만한 책이 좀 있으려나.

겸손한 독서가의 내공

김성희의 『맛있는 책읽기』(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는 다른 ㅈ신문 기자의 책이다. 격주간 출판전문지 『기획회의』(예전 『송인소식』) 연재 칼럼 '다시 읽고 싶은 책'과 '가로질러 책읽기'를 모았다. 2년간 연재한 48편 중에서 "일반 독자가 읽어도 좋을 만한 책을 소개한 40편을 골랐다."

'찾아보기'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책은 『각주와 이크의 책읽기』, 『과학혁명의 구조』, 『근대의 책읽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바다의 침묵』, 『비명을 찾아서』, 『빠빠라기』, 『세계화의 덫』, 『우상과 이성』, 『20세기를 움직인 사상가들』, 『인간 등정의 발자취』 『채링크로스 84번지』, 『침묵의 뿌리』, 『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하늘을 나는 교실』 등 모두 15권이다.

그런데 여기에다 그만큼의 어느 정도 읽은 책들을 더해도 '찾아보기'에 있는 책의 1할을 약간 웃돈다. 읽어 보고 싶은 책은 이보다 훨씬 많다. 무엇보다 나는 저자의 책과 독서에 관한 견해가 맘에 든다. "언론의 조명을 받고, 명사들의 추천을 받고, 아니면 광고를 많이 하는 책만 좋은 것이 아니다. 서점의 서가에 꽂혀 먼지만 쓰고 있지만 눈 밝은 이에게는 더없이 유쾌하고 유익한 읽을거리가 없으란 법이 없다."

이 책에 수록한 "글은 그런 책을 뒤져내고자 애쓴 흔적이다." 그렇게 "널리 알려진 책, 많이 팔린 책, 학교나 명사들이

김훈의 『내가 읽은 책과 세상』(푸른숲, 2004)

〈한국일보〉 문학담당 기자를 지낸 소설가 김훈의 책은 1989년 펴냈던 같은 이름의 책에서 시에 관한 대목들을 추렸다.

고종석의 『책읽기, 책일기』(문학동네, 1997)

에세이스트 고종석이 〈한겨레〉 문화부 기자로 재직할 때 쓴 글들을 모았다.

권하는 책을 가능한 피하다 보니 '별난 책' 읽기가 되어버렸다." 저자는 여기 소개한 책들이 고전, 명저가 아니며 대입 논술시험에 도움이 될 책도 아니라고 거듭 말한다. "대체로 새천년 이전에 나온 책으로, 그대로 잊혀지기 아깝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 책들을 고른 것이다."

칼럼 연재 중에 들은 "어떻게 그런 책을 다 읽었느냐? 책을 참 많이 읽는 모양"이라는 독자들의 감탄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치사를 하는 분들은 '이런 책까지 읽었으니 명저, 고전이나 베스트셀러야 어련히 읽었겠지' 라고 지레짐작한 때문이지만 실제 필자의 독서량은 내세울 만큼 많지 않다."

이건 겸손이다. 김성희는 좋은 책을 폭넓게 읽는 독서가다. 『맛있는 책읽기』에서 소화한 책이 그걸 잘 보여준다. 그의 독서목록은 두 번 읽어도 좋을 추리소설에서 범양사출판부의 '신과학총서'를 경유하여 징글맞은 '주의'와 '이즘'을 다룬 책까지 실로 다양하다. 책을 감별하는 눈썰미와 책들을 엮는 솜씨, 책을 읽는 내공과 그걸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하지만 그가 사회현상을 보는 시각은 좀 그렇다. 특히, 정치와 정치인을 살펴본 책들을 이야기하는, "역시 정치가 문제다"로 출발한 「정치가 뭔지」의 들머리가 "제발 싸움질만은 그만두면 좋겠다"는 상투적인 소망으로 귀착되는 건 유감이다. 이외에 눈여겨볼 만한 기자의 책읽기로는 고종석의 『책읽기, 책일기』(문학동네, 1997)와 김훈의 『내가 읽은 책과 세상』(푸른숲, 2004)이 있다. 에세이스트 고종석의 책은 저자가 〈한겨레〉 문화부 기자로 재직할 때 쓴 글을 모았고, 〈한국일보〉 문학담당 기자를 지낸 소설가 김훈의 책은 1989년 펴냈던 같은 이름의 책에서 시에 관한 대목들을 추렸다.

읽는 사람마다 다른 책의 감응

기자의 책읽기뿐만 아니라 작가 · 학자 · 평론가의 책읽기도 세상 모든 책의 일부를 담은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는 읽었는데 나는 안 읽은 책은 많다. 하지만 나는 읽었는데 전문가는 읽지 않은 책도 있다. 그러니 전문가적 책읽기에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감동적이라는 책의 감명의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쩌나 지레 겁먹을 까닭은 더욱 없다.

책 읽는 기자들이 책 마을의 '게이트 키퍼'라면, 책 마을의 주민들은 문지기들이 미처 못 보거나 잘 못 본, 울타리 바깥에 있는 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일이다. 이와 동시에 기자의 책읽기가 개인의 취향과 소속 매체의 성향에 따라 한번 걸러진 책들에 대한 독후감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내게 감동적인 책이 다른 사람에겐 싱겁기 짝이 없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깊은 감명을 준 책에 아무도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 에드먼드 윌슨의 『핀란드 역까지』(김정민 · 정승진 옮김, 실천문학사, 1987)가 어떤 이에겐 영혼을 뒤흔든 '결정적 한 권'일 수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에겐 그저 괜찮은 한 권의 책일 수도 있다. 이러니 고전과 명작의 유명세에도 혹하지 마시라. 소문을 참고는 하되 판단은 직접 읽고 내리시라.

위대한 책이든, 허접스런 쓰레기 같은 책이든 읽은 책의 감응은 읽는 사람마다 다르다.

2006 05 May